

영어 환유의 개념구조연구

이진옥

(충남대학교)

Lee, Jin-ok. 2000. A Study on the Conceptual Structure of Metonymy in English. *Linguistics* 8-1, 153-169. This paper is to deal with metonymy in framework of Conceptual Graph Theory. Conventionalized metonymy is stored in the metonymical schemata. They include container for its contents, cause for the effect, producer for its products, instrument for its user, part for the whole, artist for his work, controller for the controlled, institution for people responsible, place for the institution, place for the event. By using the various metonymical relation, the expressions are represented properly and explicitly. To formalize figures, especially metonymy, with conceptual graph helps to process the natural languag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1. 서론

Sowa(1984)에 의해 제안된 개념도식이론은 자연언어를 처리하는데 적절한 방법임이 인정되고 있다. 또한 영어의 여러 현상을 개념도식으로 나타내는 것에 대한 장점들이 다수 논의되어 왔다. 지시문제, 시제와 양상 등 의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그러나 비유적 표현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본 논문은 비유적 표현 중 환유에 대하여 그 특성을 논하고 이를 개념도식으로 나타내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환유는 은유와는 달리 지시의 문제로 여겨지고 있으며, 하나의 실체로 다른 하나를 지시하는 방법에는 11가지가 있다. 이것은 각각 환유 스키마로 저장되며, 환유 스키마에 따라 그 의미가 개념도식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비유표현을 개념도식으로 나타내는 것은 자연언어 처리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환유의 특성과 종류

환유에 대하여 논함에 있어서 항상 같이 논의되는 것이 다른 비유표현인 은유와 제유이다. 은유, 제유와 관련하여 환유를 논의하는 것은 환유의 특성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은유와 환유에 대하여 Jakobson(1954)는 실어증 환자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논의한다. Jakobson은 은유는 유사성에 근거하며 선택의 문제이고 하나를 다른 하나로 대치시키는 것임을 주장한다. 반면 환유는 인접성(contiguity)에 근거하며 하나와 다른 하나가 결합되어 연결되는 것이다.

또 다른 견해로는 환유는 대치의 문제로써, 한 표현이 외연적 연상에서 서로 관련이 있을 때 대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Milton의 *Paradise Lost*를 읽으면서 Milton을 읽는다고 할 때, 지시대상을 전체는 Milton의 삶, 작품, Milton이 살았던 도시 등을 포함한다. 이런 측면에서 환유는 완전히 지시의 문제이다. (정원용 1996: 161)

환유를 지시의 문제라기보다는 개념으로 보기도 한다. 즉, 두 표현이 지시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의미를 통해서 연관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 hired gun*이라고 할 때 총잡이의 개념이 의미 구성성분의 하나로 총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래서 총잡이에 대한 총의 환유적 관계는 지시적이라기 보다는 개념적이다.

단어들 간의 개념적 관계는 그들 지시대상물 간의 실질적 관계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환유가 개념적 문제라는 것은 Lakoff & Johnson(1980)에서도 볼 수 있다. Lakoff & Johnson은 환유가 임의로 발생한 현상이 아니고 체계적임을 주장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 (1) The ham sandwich is waiting for his check.

예문 (1)에서 *ham sandwich*는 실제 사람, 즉 햄 샌드위치를 주문한 사람을 지시한다. 이렇게 한 실체를 그것과 관련된 다른 실체로 지시하는 것이 환유이다. 다음이 그런 예들이다.

- (2) He likes to read the *Marquis de Sade*.
- (3) He's in *dance*.
- (4) *Acrylic* has taken over the art world.

(5) The *Times* hasn't arrived at the press conference yet.

(6) Mrs. Grundy frowns on *blue jeans*.

(7) *New windshield wipers* will satisfy him.

예문 (2)에서 *Marquis de Sade*는 그의 작품을 말한다. (3)에서 *dance*는 춤추는 직업을, (4)에서 *acrylic*는 아크릴 페인트의 사용을 의미한다. (5)에서 *Times*는 타임지에서 오는 기자를 말한다. (6)에서 *blue jeans*은 블루진을 입은 것을 나타낸다. (7)에서 *new windshield wipers*는 새로운 차유리 와이퍼의 상태를 의미한다.

이런 환유표현의 특수한 형태가 제유(synecdoche)이다. 제유는 부분이 전체를 나타낸다. 다음의 예가 그런 것이다.

(8) The *automobile* is clogging our highways.

(9) We need a couple of *strong bodies* for our team.

(10) There are a lot of *good heads* in the university.

(11) I've got a new *set of wheels*.

(12) We need some *new blood* in the organization.

예문 (8)은 *automobile* 하나로 자동차 전체를 나타내고, (9)에서 *strong bodies*는 강한 사람을 의미한다. (10)에서 *good heads*는 지적인 사람을 지시한다. (11)에서 *set of wheels*는 차, 오토바이 등을 나타낸다. (12)에서 *new blood*는 새로운 사람을 나타낸다. 모두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낸 것이다. 이것은 환유의 또 다른 형태로 한 실체가 다른 실체를 지시하는데 사용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은유와 환유는 다른 과정을 나타낸다. 은유는 주로 하나를 다른 하나로 생각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환유는 주로 지시적인 기능에 관련된다. 지시적인 기능으로 인하여 한 실체가 다른 실체를 상징하는 것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환유는 단순히 지시적인 기능만 하는 것은 아니며 이해를 제공하는 기능도 가진다. 예를 들면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경우에 전체를 나타내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때 한 부분을 선택하는 것은 화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측면을 결정한다. 예문 (10)에서 *intelligent people*를 지시하는 것으로 *good heads*를 선택한 것은 단순히 사람의 부분에서 *head*를 고른 것이 아니고, *head*와 관련된 사람의 특정한

특성 즉 *intelligence*를 고른 것이다.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예문 (5)에서도 *The Times*는 아무 기자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기자가 대표하는 기관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예문 (5)는 *Steve Roberts has not yet arrived for the press conference.*와는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 이런 의미에서 환유는 은유와 같은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다른 점은 환유는 지시된 어떤 측면을 구체적으로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런 환유적 개념은 일상적인 표현의 일부이다. 예를 들면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것에 대하여 인간은 구체적으로 얼굴로 사람을 나타내는 개념체계를 갖는다. 다음 예를 보자.

- (13) She's just a *pretty face*.
- (14) There are an *awful lot of faces* out there in the audience.
- (15) We need some *new faces* around here.

예문 (13-15)의 표현은 활발히 사용되는 것이다. 그림이나 사진에서 얼굴은 그 사람을 대표한다. 어떤 사람에 대하여 보여달라고 했을 때 얼굴을 보여주면 대부분 만족하겠지만, 얼굴이 없는 몸을 보여주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환유는 경험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환유는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이런 체계적인 환유는 다음과 같은 것이 대표될 수 있다.

- (16) 전체와 부분
 - Get your *butt* over here!
 - We don't hire *longhairs*.
 - The Giants need a *stronger arm* in right field.

- (17) 생산자와 생산품
 - He bought a *Ford*.
 - He's got a *Picasso* in his den.
 - I hate to read *Heidegger*.

- (18) 물체와 사용자
 - The *gun* he hired wanted fifty grand.

We need a better *glove* at third base.
The *buses* are on strike.

(19) 통제자와 통제대상

Nixon bombed *Hanoi*.
Napoleon lost at Waterloo.

(20) 기관과 책임자

Exxon has raised its prices again.
You'll never get the *university* to agree to that.
The *Army* wants to reinstitute the draft.
The *Senate* thinks abortion is immoral.
I don't approve of the *government's* actions.

(21) 장소와 기관

The *White House* isn't saying anything.
Washington is insensitive to the needs of the people.
Paris is introducing longer skirts this season.
Hollywood isn't what it used to be.
Wall Street is in a panic.

(22) 장소와 사건

Pearl Harbor still has an effect on our foreign policy.
Watergate changed our politics.

이런 예를 볼 때 환유적 개념은 체계적임을 알 수 있다. 인간이 *a Picasso*를 생각할 때, 예술 작품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와 작품의 관련성을 생각하게 된다. 작품에 대한 그의 생각, 그의 테크닉, 그의 역할 등을 생각하게 된다. 이것이 생산품을 생산자로 지시하는 환유가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The ham sandwich wants his check*.에서 화자는 사람을 사람으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손님으로써만 관심이 있는 것이다. *Nixon bombed Hanoi*.도 Nixon 자신이 하노이에 폭탄을 투하한 것은 아니지만 통제대상을 통제자로 지시하는 환유

는 *Nixon bombed Hanoi*. 라고 인간에게 말하게 할 뿐 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 이후에도 환유가 인식의 기본적 성격임을 강조하며, Lakoff(1987)은 환유가 은유와는 달리 단일한 개념영역에서 일어남을 주장한다. Lakoff & Turner(1989)에서는 환유는 주로 지시를 위해 사용되며 환유를 통해서 한 도식(schema) 속의 실체를 다른 실체로 지칭할 수 있게 됨을 주장한다. 결국 환유는 한 영역에 관계되며 지시적 기능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런 환유에 대하여 Amghar, Gayral & Levrat(1995)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특성을 들고 있다. 첫째, 환유는 하나를 다른 하나로 대치하는 것이므로, 지시의 문제이다. 예를 들면 *to drink a glass*에서 *glass*를 환유적으로 사용한 것은 *glass*의 의미가 *the contents of a glass*로 변화한 것이 아니라 *the contents of a glass*를 표현하기 위한 경제적인 방법인 것이다. 둘째, 환유가 관습화된 정도는 아주 다양하다. 그래서 어떤 것은 완전히 어휘로 되어 사전에 들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예를 들면 식당에서 손님이 앉아 있는 테이블의 번호를 사용하여 손님을 지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웨이터의 경우, 같은 상황을 표현하는데 *The patron sitting at the table number 10 left without paying the bill!* 보다는 *Table 10 left without paying the bill!*로 표현하게 된다. 이런 우연적인 환유를 다루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셋째, 환유는 개념과 환유개념사이의 인접성 관계에 의존한다. 그래서 청자는 개념과 환유개념사이의 변이를 이해해야 한다. 두 개념사이의 관습적인 관계를 알지 못한다면 유추관계를 떠올려야 할 것이다.

인접성 관계에 있는 관습적인 환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23) 원인과 결과

This fever carried him off at the age.

War is sad.

(24) 용기와 내용

The theater applauds.

A boiling kettle.

Milks, sugars(for milk-jugs and sugar-bowls)

(25) 표시와 상징하는 것

English *crown* is ill-treated by the press.

Give me a *Scotland*(to a seller of rosettes at a football stadium)

(26) 추상과 구체

Weak sex is strong.

Youth is giddy and irresponsible.

(27) 재료와 그 재료로 만든 물건

What an interesting *paper!*(article)

이런 예들은 두 용어 사이의 관습적인 관계의 존재가 화자가 하나를 다른 하나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청자는 환유의 관계가 의도된 용어를 저장하게 하므로 이해한다. 이런 관습적인 관계를 자연언어 처리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를 다음 장에서 알아본다.

3. 환유의 개념구조적 분석

언어의 표면 형태는 명확히 하나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수의 의미와 관련된다. 이 때 해결방안은 어휘목록에서 모든 가능한 표시를 하고 규범도식에서 연결된 개념을 찾는 것이다. 여기서 규범도식은 관찰, 형성규칙, 통찰에 의해서 만들어지며,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또한 이는 전형적인 상태를 지시한다. 문장에서 일어나는 어휘목록의 가능한 표지가 모두 활성화되고 규범도식이나 유형경계에서 연결된 개념을 활성화시킨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경우는 선호된 의미의 선택이 이루어진다. 선호된 의미의 선택은 관련된 계층적 연결에 따라 다르다.

동사는 어떤 제약을 위반하지 않고 논항이 환유적일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때 화자나 청자는 동사의 제약에 맞는 개념과 규범도식을 찾게 된다. 또한 잘못된 개념 즉 목표개념과 동사의 요구에 따라 예상되는 개념 즉 원천개념을 연결하는 경로를 찾는다. 이 때 필요한 것이 환유의 관습적 관계를 나타내는 환유 스키마타(metonymical schemata)이다. 환유 스키마타는 meto라고 표시된 관계에 의해 두 환유개념을 연결한다. 그러므로 관습적인 환유스키마타를 어떻게 표시해야 할지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런 환유 스키마를 Amghar, Gayral & Levrat(1995)는 다음 6가지를 제안한다.

(28) 용기와 내용

relation meto1(x,y)

[ENTITY: x]→(PART)→[INTERIOR: z]←(LOC)←[ENTITY: y]

(29) 원인과 결과

relation meto2(x,y)

[STATE: x]→(CAUSE)→[STATE: y]

(30) 생산자와 생산품

relation meto3(x,y)

[PRODUCER: x]←(AGNT)←[CREATE]→(OBJ)→[PRODUCT: y]

(31) 도구와 사용자

relation meto4(x,y)

[PERSON: y]←(AGNT)←[ACT]→(INST)→[ENTITY: x]

(32) 부분과 전체

relation meto5(x,y)

[ENTITY: y]←(PART)←[ENTITY: x]

(33) 예술가와 작품

relation meto6(x,y)

[ARTIST: x]←(AGNT)←[COMPOSE]→(OBJ)→[WORK: y]

표면 형태로 의미가 맞지 않는 개념 즉 목표 개념과 원천 개념을 연결하는 것은 목표 개념의 유형정의나 유형정의에 양립가능한 유형을 포함하는 규범도식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이외에도 환유의 관습적인 관계는 다양하다. 또한 (33)의 meto6은 (30)의 meto3의 하위유형이라 볼 수 있다. Lakoff & Johnson의 환유에 대한 예를 보아도 생산자와 생산품에 *a Picasso*의 예를 들고 있다. 미술상

의 작품과 음악의 작품을 구분하여 따로 환유개념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일관되거나 경제적인 방법이 아니다. 또한 이외에도 환유 스키마타에 포함될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34) 물체와 사용자

relation meto7(x,y)

[OBJECT: x]←(OBJ)←[USE]→(AGNT)→[USER: y]

(35) 통제자와 통제대상

relation meto8(x,y)

[CONTROLLER: x]←(AGNT)←[CONTROL]→(OBJ)→[ENTITY: y]

(36) 기관과 책임자

relation meto9(x,y)

[INSTITUTION: x]←(OBJ)←[RESPONSIBLE]-
→(AGNT)→[PERSON: y]

(37) 장소와 기관

relation meto10(x,y)

[PLACE: x]←(LOC)←[INSTITUTION: y]

(38) 장소와 사건

relation meto11(x,y)

[PLACE: x]←(LOC)←[OCCUR]→(STAT)→[EVENT: y]

(34-38)도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환유관계이며, 그 정의는 보는 바와 같다. 그러면 환유 스키마타가 어떻게 작용하여 이해되고 개념도식이 이루어지는지를 실제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39) The theater applauds.

예문 (39)은 *People in the theater applaud.*를 의미한다. 즉 내용을 용기로 표현한 경우이다. 표면적으로 (39)의 개념도식은 다음과 같다.

(40) [APPLAUD]→(AGNT)→[THEATER: x]

이를 다음의 APPLAUD의 규범도식과 비교해보자.

(41) [APPLAUD]→(AGNT)→[PERSON: x]

(40)과 (41)를 비교해볼 때, (40)이 규범도식에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THEATER가 발생하는 관련된 다른 규범도식을 알아보면 다음 2 가지가 된다.

(42) [CONTAIN]-

(LOC)→[THEATER: x]→(PART)→[INTERIOR: z]

(OBJ)→[PERSON: {*}]→(LOC)→[INTERIOR: z]

(43) [CONTAIN]-

(LOC)→[THEATER: x]→(PART)→[INTERIOR: z]

(OBJ)→[FURNITURE]→(LOC)→[INTERIOR: z]

두 규범도식 중에 APPLAUD와 관련되는 것은 (42)이므로 (42)과 (40)을 연결하면 다음과 같다.

(44) [CONTAIN]-

(OBJ)→[PERSON: {*}]→(LOC)→[INTERIOR: z]

(LOC)→[THEATER: x]-

→(PART)→[INTERIOR: z]

←(AGNT)←[APPLAUD]

여기에서 용기와 내용에 관련된 환유관계 meto1이 적용되면 meto1의 특정관계는 다음과 같다.

(45)[THEATER: x]←(PART)←[INTERIOR: z]→(LOC)→[PERSON: {*}])

(46) [PERSON: {*}])←(METO1)←[THEATER: x]

그러므로 예문 (40)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47) [PERSON: {*}] -

←(AGNT)←[APPLAUD]

←(OBJ)←[CONTAIN]→(LOC)→[THEATER: x]

이런 과정을 거친으로써 THEATER가 PERSON으로 대치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고 예문 (40)의 의미를 바르게 기술할 수 있다.

다음은 예술가와 작품에 연관된 예문을 살펴보자.

(48) Paul plays Bach.

예문 (48)를 개념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 (49)이다.

(49) [PERSON: 'paul']←(AGNT)←[PLAY]-

→(OBJ)→[COMPOSER: 'bach']

(50) [PERSON: *]←(AGNT)←[PLAY]→(OBJ)→[MUSICAL-PIECE]

그러나 (49)에서 COMPOSER와 PLAY의 보어가 될 수 있는 것을 보여 주는 (50)과는 상충됨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COMPOSER의 유형정의를 고려한다.

(51) COMPOSER의 유형정의

[ARTIST: x]←(AGNT)←[COMPOSE]→(OBJ)→[MUSICAL-PIECE]

유형정의 (51)과 (49)를 연결하면 다음의 결과가 나온다.

(52) [ARTIST: 'bach']-

←(OBJ)←[PLAY]→(AGNT)→[PERSON: 'paul']

←(AGNT)←[COMPOSE]→(OBJ)→[MUSICAL-PIECE]

그러면 여기서 환유 개념관계 meto6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53) relation meto6(x,y)

[ARTIST: x]←(AGNT)←[COMPOSE]→(OBJ)→[WORK: y]

유형격자에서 MUSICAL-PIECE의 위치는 MUSICAL-PIECE < WORK이므로 meto6의 특정형태는 다음과 같이 된다.

(54) [MUSICAL-PIECE]←(METO6)←[ARTIST]

(54)에 의해 ARTIST와 WORK의 연결은 구체적으로 ARTIST와 MUSICAL-PIECE의 연결이 된다. 그러므로 최종도식은 다음과 같다.

(55) [MUSICAL-PIECE]-

 ←(OBJ)←[PLAY]→(AGNT)→[PERSON: 'paul']
 ←(OBJ)←[COMPOSE]→(AGNT)→[ARTIST: 'bach']

그래서 예문 (48)은 *Paul plays a musical piece composed by Bach*의 의미로 해석 가능해진다.

다음은 물체와 사용자의 경우를 보자.

(56) A sheriff hires a gun.

예문 (56)에서 *a gun*은 *a person who uses a gun*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대로 개념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57) [SHERIFF]←(AGNT)←[HIRE]→(OBJ)→[GUN]

그러나 HIRE의 규범도식을 볼 때 (57)은 위배된다.

(58) [PERSON: x]←(AGNT)←[HIRE]→(OBJ)→[PERSON: y]

즉 HIRE의 보이는 PERSON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PERSON의 GUN과 관련된 규범도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59) [PERSON]←(AGNT)←[USE]→(OBJ)→[GUN]

GUN이 포함된 규범도식 (59)와 (58)를 연결하여 GUN을 머리어로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60) [GUN]-

$$\begin{array}{c} \leftarrow(\text{OBJ}) \leftarrow[\text{HIRE}] \rightarrow(\text{AGNT}) \rightarrow[\text{SHERIFF}] \\ \leftarrow(\text{OBJ}) \leftarrow[\text{USE}] \rightarrow(\text{AGNT}) \rightarrow[\text{PERSON}] \end{array}$$

그러면 여기서 환유관계 meto7의 정의를 도입할 수 있다.

(61) relation meto7(x,y)

$$[\text{OBJECT: } x] \leftarrow(\text{OBJ}) \leftarrow[\text{USE}] \rightarrow(\text{AGNT}) \rightarrow[\text{USER: } y]$$

(61)의 정의에서 OBJECT와 USER, 그리고 (60)에서 연관지을 수 있는 GUN과 PERSON의 유형격자 내에서의 관계를 살펴보면 GUN은 OBJECT의 하위유형이고, PERSON은 USER의 하위유형이 된다. 그러므로 METO7의 특정한 경우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62) [USER] \leftarrow (METO7) \leftarrow [GUN]

그러면 SHERIFF와 GUN의 관계를 SHERIFF와 USER의 관계를 대치시킨다. 그래서 예문 (56)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63) [PERSON]-

$$\begin{array}{c} \leftarrow(\text{OBJ}) \leftarrow[\text{HIRE}] \rightarrow(\text{AGNT}) \rightarrow[\text{SHERIFF}] \\ \leftarrow(\text{AGNT}) \leftarrow[\text{USE}] \rightarrow(\text{OBJ}) \rightarrow[\text{GUN}] \end{array}$$

(63)에서 예문 (56)이 *A sheriff hires a person who use a gun*의 의미가 됨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환유 관계를 설정함에 따라 예문에 따른 정확한 의미를 규범도식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다음은 통제자와 통제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자.

(64) Nixon bombed Hanoi.

예문 (64)의 의미는 Nixon이 직접 하노이를 폭파시켰다기보다는 명령

166 이 진 옥

을 내려서 군대로 하여금 그렇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의미는 *The army which is controlled by President Nixon bombed Hanoi.*이다. 여기서는 meto8이 적용된다.

(65) relation meto8(x,y)

[CONTROLLER: x]←[AGNT]←[CONTROL]→(OBJ)→[ENTITY: y]

통제자와 통제대상의 관계를 나타내는 (65)로부터, [CONTROLLED]←[METO8]←[CONTROLLER]를 이끌어내고, 이것의 특수한 경우가 다음과 같이 된다.

(66) [ARMY]←[METO8]←[PRESIDENT: 'nixon']

그러므로 예문 (64)의 개념도식은 다음과 같다.

(67) [ARMY]-

→(AGNT)→[BOMB]→(OBJ)→[CITY; 'hanoi']

←(OBJ)←[CONTROL]→(AGNT)→[PRESIDENT: 'nixon']

이렇게 meto8로 인하여 정확한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다음은 기관과 책임자에 관련된 예문을 보자.

(68) Exxon raised its prices.

예문 (68)을 그대로 개념도식으로 나타내보자.

(69) [INSTITUTION: 'exxon']←(AGNT)←{RAISE}→(OBJ)→[PRICE]

그러나 어떤 상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주제는 사람이 되므로, 사람과 INSTITUTION에 관련된 규범도식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70) [PERSON]←(STAT)←{RESPONSIBLE}-

→(OBJ)→[INSTITUTION]

그래서 (69)와 (70)을 연결하면 다음과 같다.

(71) [INSTITUTION: 'exxon']-

$\leftarrow(\text{AGNT}) \leftarrow\{\text{RAISE}\} \rightarrow(\text{OBJ}) \rightarrow[\text{PRICE}]$

$\leftarrow(\text{OBJ}) \leftarrow\{\text{RESPONSIBLE}\} \rightarrow(\text{AGNT}) \rightarrow[\text{PERSON}]$

(72) relation meto9(x,y)

[INSTITUTION: x] $\leftarrow(\text{OBJ}) \leftarrow\{\text{RESPONSIBLE}\}$ -

$\rightarrow(\text{AGNT}) \rightarrow[\text{PERSON}: y]$

(71)과 환유관계의 정의 (72)에 의해 INSTITUTION은 PERSON으로 대치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예문 (68)은 다음과 같다.

(73) [PERSON]-

$\leftarrow(\text{AGNT}) \leftarrow\{\text{RAISE}\} \rightarrow(\text{OBJ}) \rightarrow[\text{PRICE}]$

$\leftarrow(\text{AGNT}) \leftarrow\{\text{RESPONSIBLE}\} \rightarrow(\text{OBJ}) \rightarrow[\text{INSTITUTION}: 'exxon']$

그래서 (73)은 예문 (68)의 의미 *The person who is responsible for Exxon raised its prices.*를 정확히 기술한다.

이렇게 자연언어 처리와 지식표현언어로 개발된 개념도식이론에서 취급하기 어려웠던 비유표현 중 환유는 관습적 관계를 환유개념관계로 설정함으로써 정확한 의미를 개념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Amghar, Gayral & Levrat(1995)는 6가지 개념관계만을 논의함으로써 부족함을 볼 수 있다. 6 가지이외에도 물체와 사용자, 통제자와 통제대상, 기관과 책임자, 장소와 기관, 장소와 사건 등의 포함되어야 함을 논의하고 이들이 각각 어떻게 환유개념관계와 관련되며 의미가 어떤 과정을 거쳐 정확히 기술되는지를 알 수 있다.

4. 결론

환유에 대한 연구는 은유와 마찬가지로 언어연구의 중심대상 밖으로 밀려나 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은유나 환유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언어현상으로 이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Lakoff가 이끄는 인지과학과 컴퓨터 언어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환유는 은유와 달리, 의미의 문제라기

보다는 지시의 문제이다. 은유는 유사성에 기초를 두지만 환유는 인접성에 기초를 둔다.

그러므로 지시와 인접성의 문제인 환유의 예를 환유 스키마타로 저장하여 환유표현이 발생할 때 활성화되도록 함으로써 명확한 의미를 기술할 수 있다. 관습화된 환유의 예는 용기와 내용, 원인과 결과, 생산자와 생산품, 도구와 사용자, 부분과 전체, 예술가와 작품만을 논의하였으나, 물체와 사용자, 통제자와 통제대상, 기관과 책임자, 장소와 기관, 장소와 사건 등도 관습화된 관계이므로 추가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설명력을 더 높일 수 있다. 이렇게 개념도식으로 다양한 환유표현을 기술하는 것은 그동안 어렵게 여겨왔던 비유표현의 형식화와 전산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정원용. 1996. 「은유와 환유」. 신지서원
- Amghar, T., F. Gayral and B. Levrat. 1995. "Table 10 Left without Paying the Bill! A Good Reason to Treat Metonymy with Conceptual Graphs." In Gerard Ellis et al. (1995). 129-43.
- Ellis, G., R. Levinson, W. Rich, and J. F. Sowa, eds. 1995. *Conceptual Structures: Applications, Implementation, and Theory*. Springer.
- Jakobson, R. 1954. "Two Aspects of Language and Two Types of Aphasic Disturbances." Mouton. 239-59.
- _____. 1971. "The Metaphoric and Metonymic Poles." *Fundamentals of Language*. Gravenhage: Mouton. 76-82.
- Lakoff, G. 1987.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koff, G. and M. Johnson. 1980. *Metaphors We Live B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koff, G. and M. Turner. 1989. *More than Cool Reason*. Chicago: Ulnviersity of Chicago Press.
- Sowa, J. 1984. *Conceptual Structures: Information Processing in Mind and Machine*.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 _____. 1991. *Principles of Semantic Networks: Explorations in the Representation of Knowledge*. Morgan Kaufman Publishers.
- _____. 1992. "Conceptual Graphs Summary." *Conceptual Structures: Current*

- Research and Practice. Tim E. Nagle et al. Eds. Ellis Horwood Workshops. England. 3-51.
- _____. 1997. "Peircean Foundations for a Theory of Context." *Conceptual Structures: Fulfilling Peirce's Dream*. Dickson Lukose et al. Eds. Springer. 41-64.

305-764 대전시 유성구 궁동 220

충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E-mail: jewelee@chollian.net